少年小說

잠꾸러기 (上)

丁友海

就寢＝九時.
起床＝六時

승호의 책상머리 벽에는 이러케 먹으로 또록또록 박아쓴 쪽지가 부터잇습니다. 저녁아홉시에 자리에 들고, 아침여섯시에 이러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승호는 이귀측을 꼭꼭 실행해왓노냐하면 그러치못햇습니다.

밤에는 거개 열시가 넘은뒤에 잡니다. 공부에 열심이되여 늦어진다면 오히려 장한일이지만, 책보는 학교에서 가저온대로 끌러보지도안코, 그러저럭놀다가 열점치는소리에 어머니가 그만 자라구 말슴하서야 할수업시 드러눕니다. 그대신 아침도 한시간 늘리자요. 벼개마테 시벌시계가 일곱점이라고 요란스럽게 치면, 승호는 그제야부시시 아려나 『에 그놈의 시게 시끄러워서……』하고 투정을하며 메다부칠듯이 시계를 옴겨놋습니다. 시계는 승호가 깨여달라는시간에 충실하게 약속을 지켜, 울엇건만 공치사는 새레 엉뚱한 미움만을 밧는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장님이 문고리를 잡앗다고나 할까요. 어제밤에 그다지 일즉 자지도안헛는데 여섯시 정각에 이러낫습니다. 승호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일즉 이러난것이 신기하엿습니다. 그래 자리옷바람으로 대문밧글 나와 끌목을거닐어보앗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은 굿게 잠겨잇섯습니다. 인기척이업는 끌목은. 물을 뿌린듯 고요하엿습니다. 몬지가 가라안고 하늘이맑어서 막혓든 가슴이 툭 토이는것가티 마음이 거분하엿습니다. 승호는 깨끗한 공기라 양껏 드리마셔가지고 내뿜엇습니다. 정신이 상쾌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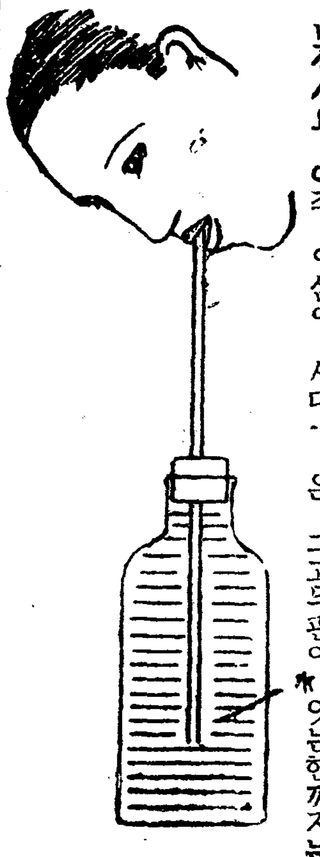
그리자 두부장수의 딸랑딸랑 종흔드는소리가 들렷습니다. 이편 끌목으로 드러섯는지 딸랑소리는 점점 크게 울렷습니다. 두부장수는 승호보다 한두살 어려보이는 소년이엇습니다.

『두부 얼마식 하니?』

두부장수가 집압헤 이르자 승호가 물엇습니다. (계속)

자미잇는 理科遊戲

아무리빨아도 안올라오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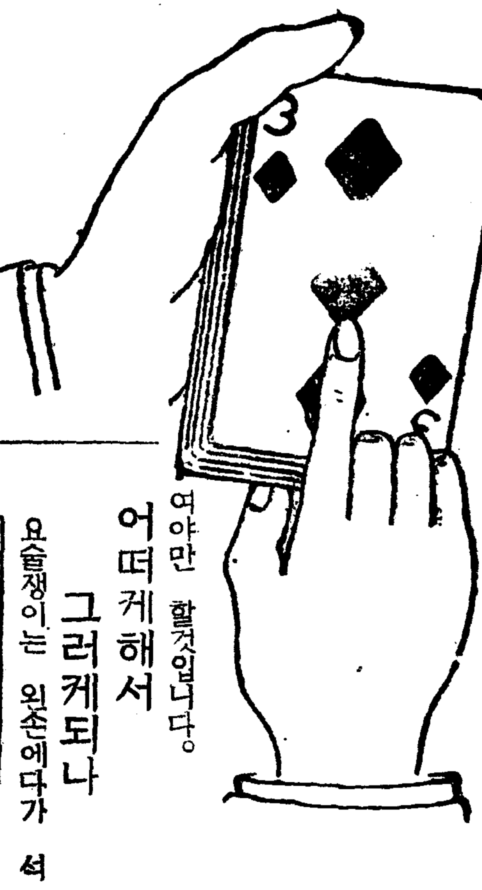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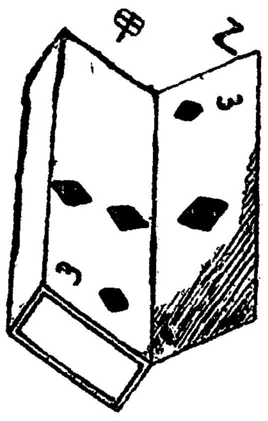
유리병속에 물을 갓득 붓고 고무관(管)을 꼭 끼워 노코 그고무관을 통해서 병ㅅ속에까지 유리관(管)을 꼬자 놋습니다. 자 이 유리관을입에 물고 물을 빨아 올린다면 물이 딸아 올라 오겟습니까? 얼른 생각에는 곳 딸아 올라 올것 갓지오만은 아무리 빨아도 올라 오지를 안습니다. 거짓말 갓거든 한번 시험해 보십시요. 아주 입심이 세다고 자신 하시는 분이 게시거든 꼭 한번 시험 해 보십시요. 그러나 고무관만 뽑아버린다면야 문제업시물이올라오고말고 여부가 업지오만은 그고무관이*잇는한까지는 입으로 빨아내는 것은 관속의 공기밧게 더빨아내지를못한답니다. 왜그러케 되느냐고요? 그걸설명하지요. 공기가 업는 진공(眞空)에 물이올라오는것은 공기의 누르는힘즉 공기의압력(壓力)입니다. 그런데 고무관이끼워잇슬때는 바갓과공기가 통치 안키때문에 압력이 생기지 안치만은 그 고무관을 빼는때는 곳 그압력이생기어 물이 올라오는것이랍니다

요술

카드짱이변해 석냥갑되는법

몬저 한개의 석냥ㅅ갑을준비하지안해서는 안되는데 그갑은 보통ㅅ것보담 훨신얇어야만 요술을 부리기에 편리합니다. 그석냥ㅅ갑의 맨우에다가 그림과가티 한장의 카드를부치고 그것을 반에· 꺽거노차니까 카드는 꼭석냥ㅅ갑의 곱절쯤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케 카드를 꺽거서 갑과을 두쪽으로 내 노흔뒤 옷의 등뒤에다가는 살짝석냥ㅅ갑에 바르는 그림조이를발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펴면 보통카드나 마찬가지의 카드로되고접으면갑쪽가튼석냥ㅅ갑으로변하는 것이랍니다. 왼손의 손빠닥을 우묵하게 굽히어 여러장의 카드와함께 맨미트로카드 부친 석냥ㅅ갑을 쥐는데 석냥ㅅ갑을 쥔것은모르도록 쥐어야 합니다. 그러고 오른손의 손까락으로 우에잇는 카드를 한장한장 다떨어 트리고 나서 왼손을흔드는척하고 슬쩍 카드의 반쪽을 접는데 고매듭을 잘못서둘나가는 고만 발각이 되는만큼 기민하게 행동을 하여야만 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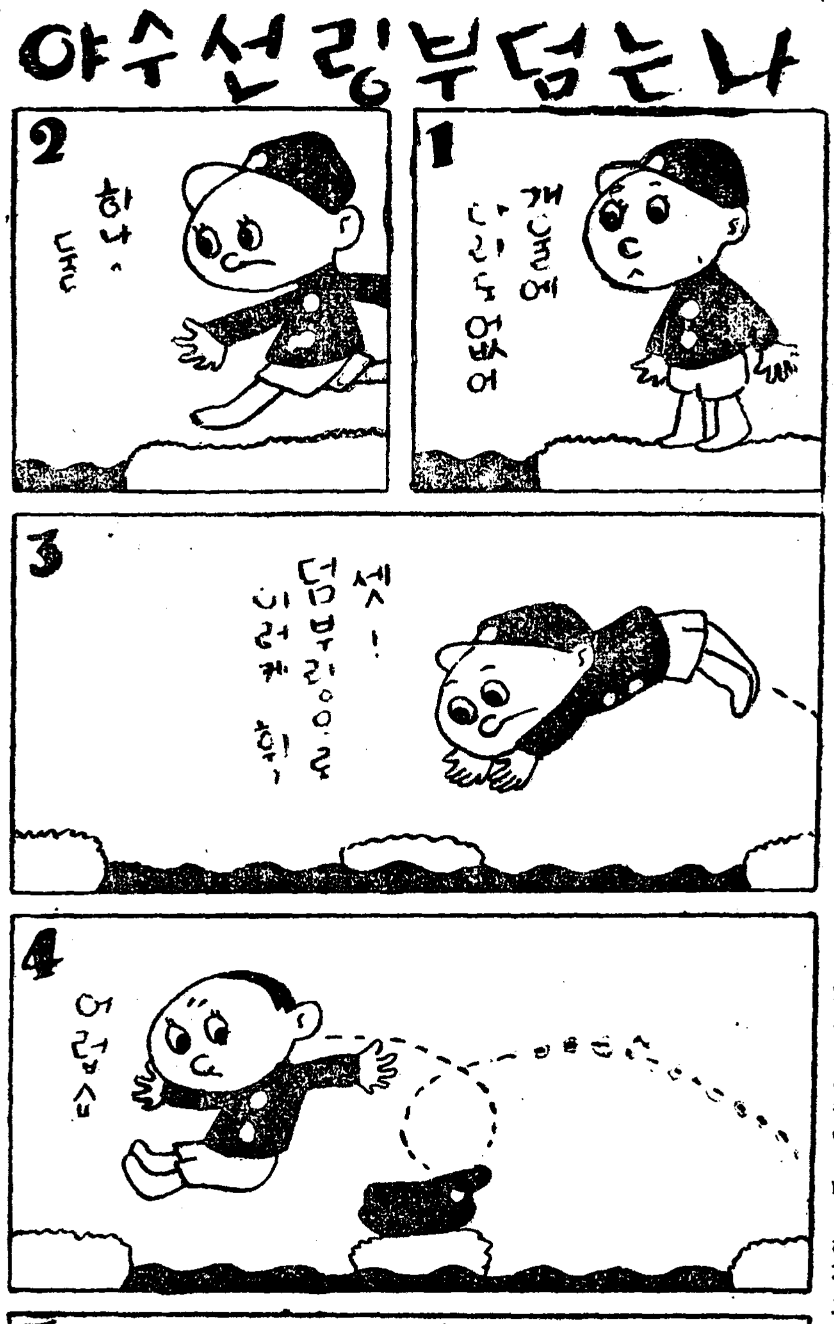




어떠케해서 그러케되나

요술쟁이는 왼손에다가 석냥ㅅ갑보담 곱절쯤도는 카드를 들고서『지금 오른손으로 이카드를 한장한장 떨어트립니다』고말한뒤 오른손의 손까락으로 한장한장 건드리어 떠러트립니다(그림과가티) 맨나종 왼손에 단 한장의 카드가 남엇슬때『여기남은 단한장의 카드는 그대로 석냥ㅅ갑이 되야 버립니다』고 설명하며 하낫 둘 셋의 구령을 부르는동시에 왼손을한번 흔들흔들해서 과연 정말로 석냥ㅅ갑을 맨들오 놋습니다.

나는덤부링선수야



金湘旭画

우슴단지

오늘온도는즉각

책상모소리를 재고나서

아우『언니 이모소리가 구십도나되우』

언니『그걸 직각(直角)이라고 한단다.』

그다음날 한난계(寒暖計)를보더니만

아우『언니 오늘은 온도가직각이요』

언니『?』

풀은겨울에빌일

아버지『어쩌나 무더운지 도무지 풀을비기가어렵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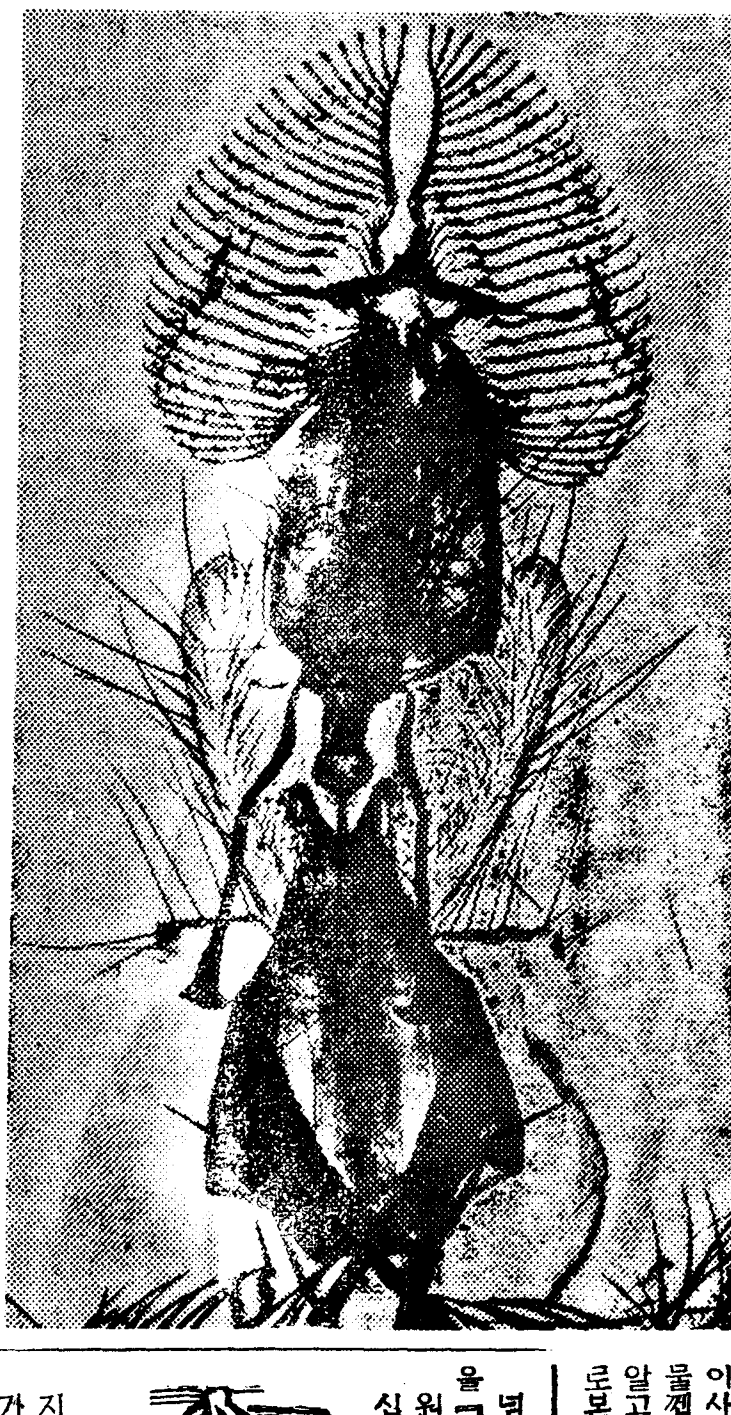
정득이『그러면 이다음부터랑은 겨울에 풀을 비어두도록하시지요』

지전ㅅ갑도곱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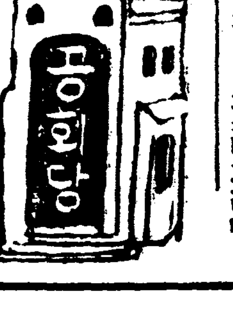
갑『요사이는 조이ㅅ갑시 어찌나 올랏든지 그전보담 배도 넘는단 말이지』

을『아니, 이사람아 그러면 실원짜리 지전은 이제부터 이십원으로쓰게 되겟네그려』

아라내면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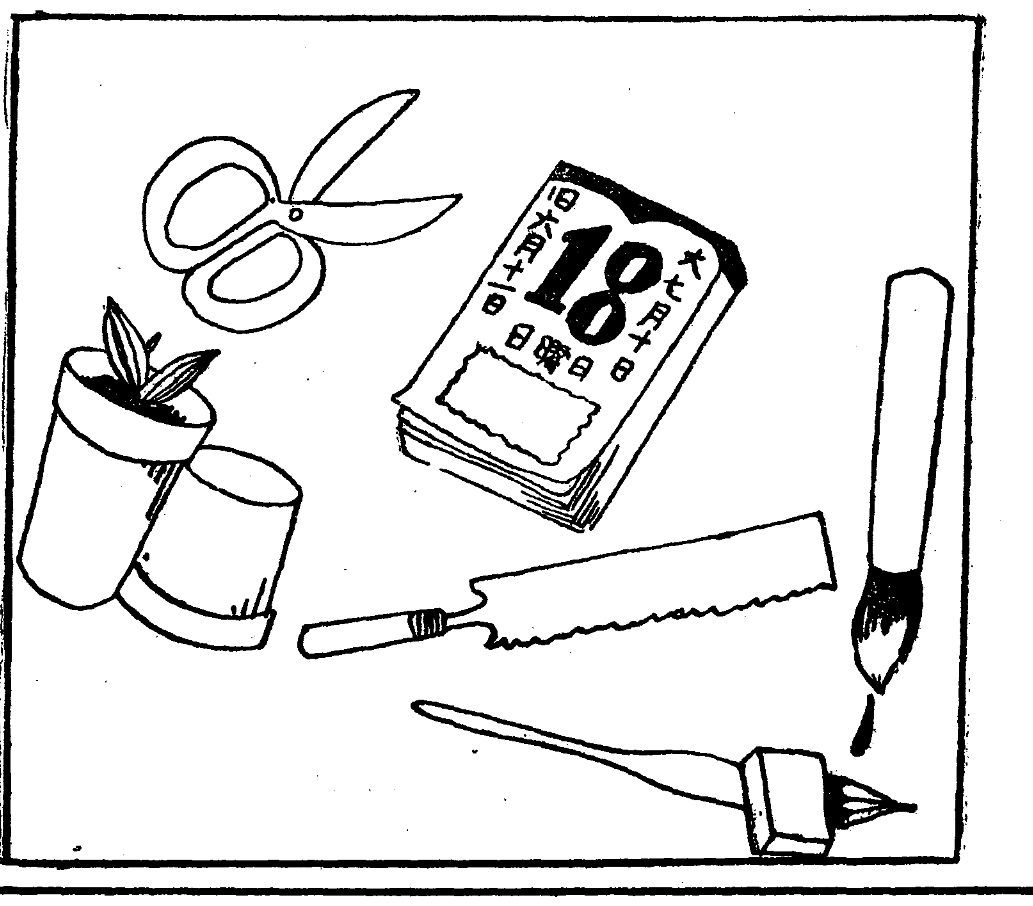
이사진을 아라낼분은 아마 드물겟니다. 대체무슨벌레일까ㅡ 알고보면 파리주둥이를현미경으로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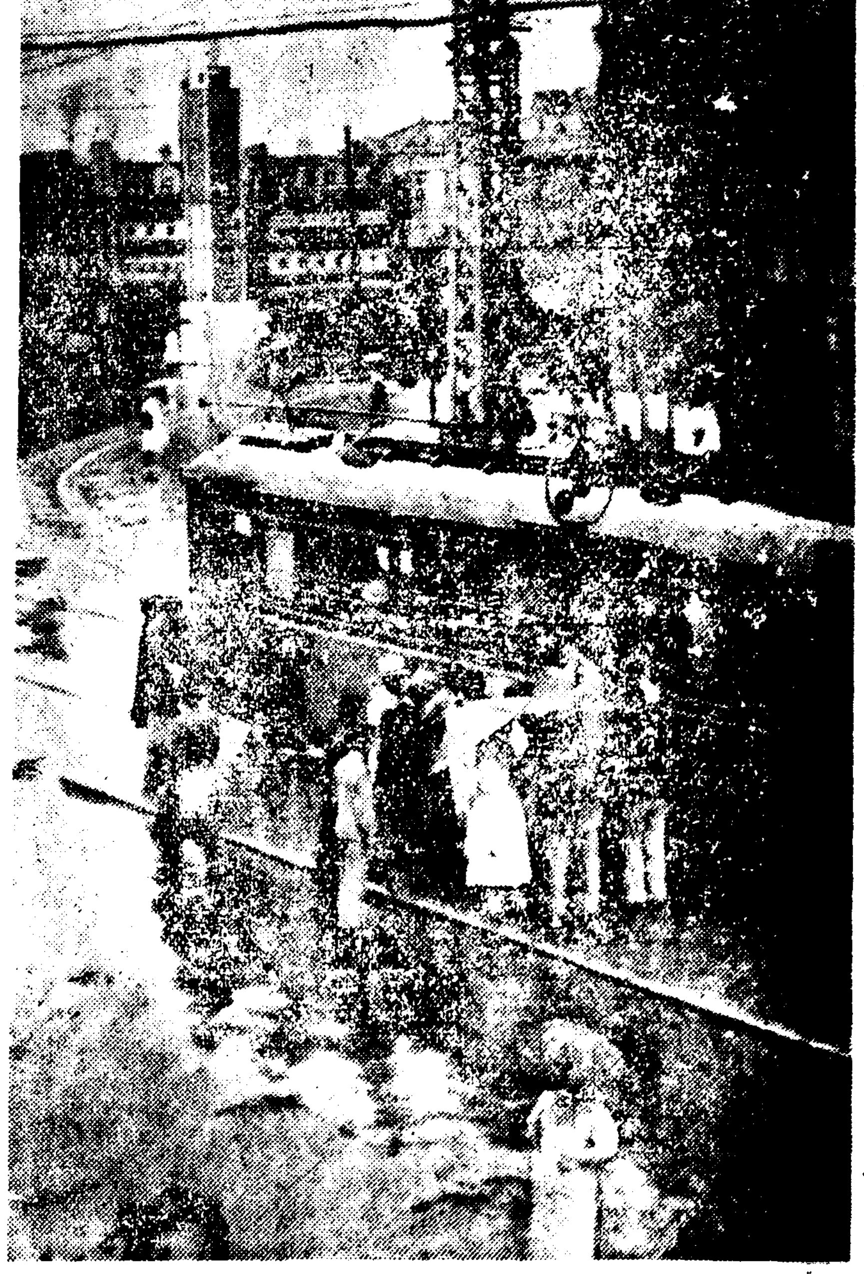


六月十三日은 단오데、자미지게 놀랏습니다. 그네를 뛰다가 그네는 대번옹올라가서 솔나무끄테가 다앗습니다. 나는 깜작놀랫습니다. 어떠케 무섭든지 그자리에서 바로안젓습니다. 안저서 山을본즉 山이 거러왓다 거러갓다하는것가텃습니다. 나는 그네에서 내릴라고 안젓더니 더땅이 도라가는것가텃습니다. 그럼으로나는울것가튼것을 겨우참엇습니다. (茂朱公普一男 韓海洙)

의사보기

이 그림에는 무엇이 틀렷나 알아 내어라




구절구절 나리는 여름비 —(今日鐘路에서)

爆死百十四名 重輕傷三百餘名
對日戰準備로 連日連夜作業中
華西火藥工場大爆發

【上海十八日發同盟】사천성중경(四川省重慶)대안인 강북(江北)에잇는 화서화약공장(華西火藥工場)은 대일전으로말미암아 련일련야 화약제조를 하고잇섯는데 십칠일오후세시쯤 돌연폭음과함께 폭발하야 공인칠십사명 경비병약사십명은 폭사하고 기타삼백여명의 중경상자를 내엇다 현장은 죽은시체와 고기덩어가 널려잇서 참상을 극하고 부근의 가옥은 도괴하고 주민은 문밧그로 뛰어나와 울고불고하는등 처참한 광경을 보히고잇다

放火犯은炎帝!

露積炭에自然發火 五千噸石炭灰燼
會寧의合同炭礦所有炭被害
各炭礦極力警戒中

【淸津】함북도보안과(保安課)에 드러온정보에 의하면 요사이매일 과가티 계속되고 잇는염열(炎熱)때문에 들에싸노흔 석탄(石炭)덤이(露積)에 불이부터(自然發火)오천여돈(噸)의 석탄이회진(灰燼)으로 화하고마른사실이잇다한다 그는함북 회녕군(會寧郡)에 잇는유명한유선탄광(遊仙炭礦)부근인 신계림역(新鷄林驛)근처에서 회녕의 합동탄광회사(合同炭礦會社) 소유의석탄덤이어일만오천돈에 어려난사실로 지난이십삼일부터 나려쪼이는 폭양에 석탄이지글지글 끓다가다시불이부터 소위자연 발화를 본것이라한다 동회사에서는 즉시 매일인부 오륙십명의 사역을하야가며 진화에 노력한결과 겨우 지난십사일에이르러 진화하엿다한다 소실총액은 오천여돈으로 그피해액어 약만오천원에 달한다는바 압흐로혹서가 계속되는한 여가튼염제(炎帝)의 사변이 업슬수 업다하야 탄광관계자들은 크게 경계를하고잇다한다

線路에서놀든 九歲少兒轢死

【永登浦】십칠일오후일시삼십팔분 경인선제사백십이렬차가 영등포역을떠나서 인천(仁川)으로향하야 영등포로부터 열키로팔

목숨을걸은"納凉" 高壓線에올라가慘死

【咸興】뮈지가나흔 이참극— 십이일 오후여섯시쯤 함주군삼평면(三平面)수동리(水東里)리동백(李東伯)(一)은 그집부근에잇는흥남(興南)으로부터 원산(元山)에이르는 삼백"볼트"의고압송전선(高壓送電線)철탑에올라갓다가 감전즉사(感電即死)하얏는대 어는그날 그철탑부근에서 소를먹이다가 납량(納凉)을하라고어십오척이나되는 철탑(鐵塔)에올나갓다가 그ㄱ리죽어 버렷다고한다

對支國策貫徹促進의 時局大會를開催
廿日午前七時朝鮮神宮前서
府民館에선時局講演

경성부청안에 잇는 경성국방의회(京城國防義會)에서는 시국이 중대한 이때 총선궐기하야 시국의 인식을 바로하고 국론의 통일강화에 임하고 거국일치국책의 관철에 매진하고자 오는 이십일오전 칠시부터 동앙신일까지 조선신궁 중앙광장에서 시국대회를 연다는바 동일오후칠시반부터는 부민관에서 시국대강연회를 열기로되엿다

◀時局에 對하야 國民에게 朝鮮軍參謀 深堀中佐
◀動亂의北支를바라보면서 鮮滿拓殖總裁 二宮中將

薪炭商의國防獻金

부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이백오십번지의 신탄상을경영하는 김순권(金順權)씨는 십칠일오전 국방헌금으로서 십원을 소관서대문경찰서에 가저왓다한다

時局의反映 元山郵便局에 電信電話急增

【元山】북지의 풍운이 급박해감을따라 원산우편국의 전신전화도 그시국을 반영하야 날로 증가되여간다 즉원산우편국 전화과에서 일일 발착하는 시외전화수는 평균칠십통화이고 중계전화는 삼십여통화로서 평시의 배이상에달하며 그중에서도 원산경성간의시외전화는 평균오백여통화에달하야 사건발생이래 그선은 련일련야쉴사이업는 편이며 또 전신과(電信課)는 매일평균 취급수가 발신이 오백사십통 착신이 오백팔십통 중계(中繼)칠천오백통 특수급(特殊扱)오백륙십통 합계 구천이백팔십사통을 산하고잇다는데 특수급의 외국전보는 평일의 삼배이상에 달하야 전신권하에도 비상시풍경이 반영되고잇다

『심부름이라도하겟소』 戰線志願의女子

부내신당정(新堂町)이백십사번지 자동차운전수 로성기(盧性基)의 처 (一)는 자동차운전의 경험이 잇서서 군대자동차 운전수지망을 하엿스나 다모집한 뒤엿스므로 십칠일다시 종로서로차저가 군대에서 심부름이라도 하도록주선하여달나고 간청하야 계원을 감격게하엿다

開城孫洪駿氏 一萬圓을獻金 飛行機購入費로

【開城】부내북본정(北本町)고려삼업사사장(高麗蔘業社社長)손홍준(孫洪駿)씨는 중대한비상시국인이때 늣긴바잇서 지난십륙일 개성부윤을 방문하고 비행기건조자금으로 기부해달라고 일만원을 자진헌납하얏다한다 씨는 현재 개성부방호단서분단부분단장(開城府防護團西分團副分團長)으로 또는사회유지로 평소에 선망이 놉흔분이라한다

鍾路署에 國防獻金

십칠일 부내 익선정(益善町)백사십번지 김병섭(金秉燮)씨는 삼백원 동일안국정(安國町)백사십삼번지 김동근(金東根)씨는 오원을 국방헌금으로 각각종로서에 기탁하엿다

大東民友會主催 時局大講演會
十九日鐘路中央基靑會舘서

오는십구일 오후일곱시반부터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주최로 북지사변대연설회(北支事變大演說會)를 부내종로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하게되엿다는바 연제와 연사의 순서는 다음과갓다한다

◀北支時局의發展과朝鮮人의覺悟
辭 大東民友會理事 車載貞
◀北支事變과朝鮮의立場 大朝京城支局長 鈴木正文
◀抗日은東洋支那를救하는가 大東民友會理事 朱鍊
◀事變의眞相과皇軍의決意 陸軍少佐 李絳宇

釜山崔順伊女史의壯擧
"邊이업는사랑"의敎訓
女丈夫의갸륵한赤誠
異域에서子女를위하야貯蓄한二千五百圓을 애낌업시鄕土育兒機關에!

백사십미돌되는 석축철(…)에서 목욕하고잇든 시내도림정(道林町) 일백십사번지 석점—가 물에빠져 …와서 전기철(…)에 두개골을 …곳통에 통진하엿슴으로 미처 … 정(…)이백사번지 … 사부디치여 즉사하엿다고한다

【釜山】연약한 일개여성으로만리타국에서 화초(花草)장사를하야 푼푼히모흔돈 이천오백원을 고향의육영사업에 자진기부한거룩한사실이잇다 이사건의 주인공은 멀리미주하와이(米洲布哇)에사는 최순이(崔順伊)(　)여사인데 지금으로부터 약이십칠팔년전에 부산부에서 하와이에 건너가 양복상을 경영하고잇든 최기여(崔基汝)씨에게 시집을가섯는데 사변전에남편이사망하얏슴으로 살려나갈길이업서 아들딸 넷남매를데리고 가진고초를 겪거가면서 꽃장사(花草商)를 하야서 그날그날을 살려나오는중 그생활비를 절약하야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야 얼마씩 저축을 하얏섯다한다 그런데 수월전에 고향인 부산부 중도정(中島町)에 도라와서 오래간만에 그립든 고향의 품안에 안기여 쉬고잇는중 동정내에잇는 항서교회(港西敎會)가경영하고잇는 영생유치원(永生幼稚園)이 원사가업서서 교회당을 빌려사용하고잇다는 말을듯고 크게 늣긴바잇서 한사람의자녀를위하는것보다 수만흔 사람들의 자녀를위하는것이 맛당하다는 거룩한결심을한후 자기자녀들의 장래를위하야 수년간가진고초를 겪거가면서 푼푼히모흔돈이천오백원을 앳김업시 그원사건축비에 충당하라고 자진기부를 하얏다한다 그래서 이소문이 전파됨을따라 동녀사의 거룩한 마음에칭송의 소래가자자하다고하며 동유치원에서는 동녀사를 영영기렴하고자 새로건축할 원사를 최순이녀사기렴관(崔順伊女史記念館)이라고 명명하기로결정하고 동녀사에게 량해를구하얏던바 굿게사절하므로 수차로교섭한결과 녀사의 남편인 고최기여기렴관(崔基汝記念館)이라고명명하기로 량해가되엿다 그래서수일내로 그원사의 건축에착수할터이라한다

(사진은최순이녀사)

少年工이溺死
鷺島漢江岸에서
斷腸의場面!父母들의呼哭

십칠일오후두시쯤 부내 노도(鷺島)아래 용두굴이라는 위험한 한강연안에 십칠세소년이 익사하엿다 그는 부내창신정(昌信町)삼백사십삼번지의이십이호에사는 김흥관(金興寬)의장남 김영제(金永濟)(一七)군으로 그는동일아침열시쯤에 가튼마을에 사는 두동무와 자전거를타고 전기장소에가서 수영을하다가 깁흔물에 빠저서헤여나오지 못하고 위험하게되자 근처에잇는 나무배사공이배를 가지고 현장에가서 구하려하엿스나 때는 이미 느저서 필경 익사하게 되엿다 죽은김영제군은 그집의 맛아들로 빈한한 가정임으로 힘업는 부모와 동생 삼남매를 위하야 일하는 공장직공으로 지나면서 겨우 호구의 책을 세우고지냇는데 돌기둥가티 녀엿든 그가 익사하엿다는 소식을 드른그의 부모는 현장에가서 사랑하는아들의 시체를 부등켜안고 비통하는양은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먹음게하엿다한다

少女哀話

십칠일동대문서에는때마츰 나리는 비를마즈며 허수룩한 소녀가 차저와 어머니가 중병이나 고향으로도라갈수 업다고 눈물과 함께 구조를 청한 애화의한토막이잇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대화리(平昌郡大和面大和里)고박재우(朴在祐)(　)의둘재딸 광옥(光玉)(　)으로 소녀의 가정은 작년큰물에가장의 죽엄과함께 한업는빈곤의구렁에빠지게되엿다 삼남매를 부뒤안고 가난과싸워가는 어머니김씨(金氏)의 고생을 보다못해 이소녀는 지금부터 십여일전 어떤사람의소개로 동대문밧 모제사공장(製絲工場)에 드러갓스나 무급으로잇든중 수일전고향에서어머니의 병세위독이라는 급보를 밧게되여 도라갈래야 공장에서는 돈한푼도안주고 할수업시경찰에 구조를청한것으로 동서에서는곳 전기공장책임자를불러 무급으로 일을식혓슴뿐아니라 이런사정에 도모지적당한 처치를하지 안는 무책임한태도를 엄중히설유하야 이소녀를 곳어머니병석으로 돌려보내기로되엿다

井上氏의所有
訓練院橋下拳銃은
犯人은尙今未判

십칠일오후여섯시경 부내광희정(光熙町)일정목일백구번지 정상중리(井上重利)씨의집에 괴한이침입하야 모젤식권총한자루와 실탄륙십칠개를 훔쳐간사건은 기보한바이며 동일오후일곱시십분경에는 놀고잇든아이가 훈련원(訓練院)다리밋헤서 권총과실탄을어든 사건이 처음에는 어든권총과도 난당한것이 다른것이라고하야 때가때이만큼 경찰의신경을 극도로 예민케하고잇든바 그뒤자세히조사한결과 이것은 전기정상씨가 가지고잇든것으로 확정되여 동대문서에서 본정서로 보내여 본인에게돌려주엇다 그러나 절취한 범인에대하야서는 아직 알수업서 엄탐중인데 훔치자 곳내버린점으로보아 절도의 소위로 추측된다고한다

트럭에重傷

십칠일 오후두시반경 부내광

京城驛頭에내린 東京留學生野球團

留學生野球入京
明日、全徽文과第一戰

勝負를 度外視하고 鄕土人士들과의 友誼를두터이한다는 意味에서 鄕土를 차저드는 東京留學生野球俱樂部一行十一名은 光州와 大邱等의 歡迎戰을 마치고 十八日午前八時 京城驛着列車로 同俱樂部長 金昇泰氏引率아래 元氣旺盛한 가운데 入京하야 武橋町八五松屋旅館에 行李를 푸럿다 一行은 今十八日은 休養하고 明十九日午後四時半부터 徽文球場에서 全徽文軍과 入京第一戰을 行할터이며 二十日午後四時半에는 亦是徽文球場에서 高麗野球團과 對戰케되엿다

◇東京校學生軍
◀部長 金昇泰(中央) ◀相談役 嚴定煥(日大) ◀監督 洪文吉(日大) ◀마네저 朴慶元(法大) 裴基協(立大) ◀主將 陳性燮(中大) ◀投手 吳潤煥(法大) ◀捕手 朴章煥(日大) ◀一壘 李起鄕(日大) ◀二壘 朴慶元(日大) ◀三壘 韓用大(慶大) ◀遊擊 陳性燮(中大) ◀左翼 裴基協 ◀副動(日大) ◀右翼 羅朝華(日大) 吳壽甫(物理) ◀中堅 洪文吉

◇全徽文軍멘버
◀監督=李治奎 ◀主將=孫禎俊 ◀選手=金貞植 李辛得 李顯九 李建亨 姜世熙 閔鐘圭 吳龍坤 宋在璣 兪承稷

留學生蹴球敗

【順天發電】鄕土訪問中의 東京留學生蹴球團은 十七日當地에서 全順天軍과對戰한바 激烈한接戰끄테 一對零으로 東京留學生軍이 惜敗하엿다 이로써 東京留學生軍은 第一戰에 全馬山을五對零으로이겻고 第二戰에는 麗水軍을 八對零으로擊退하야 三二勝一敗의戰績을 보이고잇는데 一行中에는 連日의接戰으로因하야 負傷者가續出하야 압흐로의 對戰은 苦戰을하리라고한다

留學生野球團 大邱에서惜敗

東京留學生野球團鄕土訪問의 第二次戰인 對大邱野球戰은 十七日午後四時半부터 大邱大明洞公設運動場에서 留學生軍의 先攻으로 開始되여 結局 留學生軍이 十A對九로 惜敗하엿다한다

留學	4	2	0	0	0	0	0	0	3
大邱	0	2	2	0	0	3	2	1	A

10A…9

普專水球優勝

朝鮮學生水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三回全朝鮮學生水球大會決勝…普專對京城帝大戰은 十八日午後一時二十九分부터 東崇町 帝大풀에서 擧行된바 普專軍 勢力이 優勢를보이여 五對二로 連二年優勝하엿다

普專5(2 3…1 1)2城大

【普專】		【城大】
李熙鎬	CF	小林
康陽植	HB	落合
李昌吉	LB	相良
李相龍	RF	瀨圓
李泰松	LF	矢野
李洪昊	RB	瀨川
金鍾河	DK	大森

京城水上代表 八選手를選拔

本社後援아래열리는 第二回京平水上競技大會에 出戰할 京城代表最終豫選會는 豫定과가티 十八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運動場풀에서열고 이날의 成績을參考로 다음의 八選手를 選拔決定하엿다

【自由型】李熙鎬(普專) 金栽永(普成出) 金在德(養正) 洪福仁(培材)
【背泳】秋成求(徽文出) 吳振榮(東京高工)
【平泳】盧東奭(醫專) 崔璟鎬(公民)

日米對抗豫選에 劉約翰君出場

明大陸上部와 全朝鮮陸上軍의合同練習會는 十八日午後二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降雨中에行한바『그라운드·컨듸슌』자못 不良하야 볼만한記錄이업섯스며 同練習會에 參加하엿든 柳長春、金裕澤、劉約翰三君은 日米對抗豫選에出戰코저 今十八日午後十一時十分 京城驛發車로 渡東할터이라한다

運動界集會·人事

◀金昇泰氏(在東京朝鮮留學生野球俱樂部長)入京人事次 本社來訪
◀嚴定煥氏(同野球俱樂部相談役)同上
◀朝鮮籠球協會定期規則委員會는 二十日午後八時半 同協會事務所에서開催

明日의運動

◀野球=東京留學生對全徽文野球戰은 午後四時半부터 徽文球場에서 擧行(入場無料)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山東半島에잇서 東進中이며 高氣壓은日本東北海上에잇서 西日本과朝鮮方面에퍼지고잇다 滿洲는흐리여 處處에비가오고 西北朝鮮에도비가오며 其他地方은개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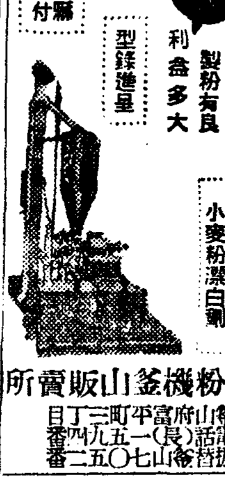
豫報 京城地方오늘밤은 비가오며 明日은 小雨가온後에 개인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九度五 最低 二○度八
今朝最低 二二度四
今日正午 二十四度五

德壽公普校校友會

시내덕수공립보통학교에서는이 학교교우회를 이십일 오후두시 학교강당에서 개최할터인대회비는삼십전이고 특히이날은 강연과영화회가잇다고한다

學疾과鼈腹은 金鷄丸으로全快
尤先! 三十錢짜리를 試用하시라
頑固한여름의 感氣에도特效
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京城府旭町
有到處藥店

農林省御指定
專賣特許 中島式自動製粉機
天下の名 中島式 製粉有良 利益多大
スノウテックス 小麥粉潔白劑
型錄進呈
三府四十二國縣指定機·補助金付

中島式製粉機釜山販賣所 釜山府富平町三丁目 電話(長)一五九四番 振替釜山七〇五二番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國民中學講義錄
左記國民中學全科講義錄十二卷十二冊合本定價十二圓인中今回整理를爲하야但只一圓五十錢에投賣함(前金注文以外는一切謝絶 送料及代引은藥書로申込次第荷造費共一圓九十五錢送付할것) 賣切되기前에至急注文하라!(萬一不合時는返金)

中學全學期 十二卷十二冊 合本을단지 一圓五十錢에投賣함
立身出世는中學에서
緊急處分으로內容見本은업다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一四 現代出版社

빈대즉사전멸

빈대가 꿀보다더달게맛잇게먹고는 즉사함으로 온집안빈대가 몰사전멸한다 빈대팔진미(八珍味)를 곳쓰시고 잠을달게주무시오
만일에 전멸안되면 책임지는책임권을드립니다 이한 여름뿐아니라 영원히 편안하게 지낼수잇습니다
갑슨 삼원 이원 일원 지방은 대금인환 삼십오전어더합니다
경성서대문정 신기신성당약품주식회사 電話光三三四·光一〇七七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就職近道 官認大滿測量學院 學生募集
滿洲山野에는 찻고부르는것모도다 測量技師不足 實施滿洲滿蒙畑部測量教授 學費食費合百六圓으로 卒業
就職責任 學則請求時要二錢切手 七月廿五日願書締切八月一日開學 奉天市平安通十二 振替奉天一一九六

各社新譜 레코一드三十枚에壹圓! 極東洋行

登錄商標 登錄商標 단륙 京城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專務取締役 李圭元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2)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八一番
總販賣部 京城鍾路警察署前(前裁判所前) 電話光化門七六五番 振替口座京城七三三番

理研淸酒 新世界

宿醉업다
痛快한 여름의 冷酒론 여맛 어氣分 여술이 第一
大鮮釀造株式會社

咸南三大河川敷地 道有로正式移管

道當局의處分方法如何로는 冒耕者에게死活問題

【咸興】함남은 물론 전조선의 리권가들이 흥미삼키면서 애를 한방향하고잇든 문제의 성천강(城川江)안변 북청(安邊, 北靑)의 남대천 등수유하천의개수공사로인하야생긴 일천칠백칠십여정보의 광대한 폐천부지(廢川敷地)는 작년삼월 이십팔일부로 함남도로부터 총독부에대하야 공사개수비의 일부부담금에 충당할의 그이관을 신청하얏든데 십오일부로 그인가지령(指令)이 총독부로부터 도에 도달되얏다

이제 함경남도에서는 어하천구역인정(河川區域認定)이라는인가를바든뒤 곳 함흥세무감독국(咸興稅務監督局)에 넘겨 감독국에서 실지조사한뒤 폐천부지의 평가(評價)지목변경을한뒤 어여서 정식으로 도유재산(道有財産)으로 어관(移管)시킨뒤에 도당국에서 다시처분할 방침이라고한다 그런데 어번 영도바게된 상대하천의 면적은 성천강(城川江)에 어배치상하야 천정배삼신상황 사함 안변남대천(南大川)은 삼십오만평 북청남대천(北靑南大川)은 목하공사중으로 확실하지안호나 약일백오십만평 합하야 약사백오십만평 삼천평의 다수에 달하는데 현재에부지는 근어천여호의 부근세농민들이 사오개년동안 힘을드려 정리하야 경작하고잇는것이다 도당국에서는 여처분에대하야서는 루보한바와가티 모경자는일체 연고(緣故)로 인정치 아니할방침이라고하며 일반에게는 공매할방침을 취할의향인듯하나 만일 모경세농들에게 대부되지안는다고하면 어제까지 그것을 모경하야 호구하고잇든 그들의 전도가 자못 문제되여 금후그들의 동향이 주목된다고한다 이외 함흥 성천강의 개수로 오는 손해는 어천륙백원 원인은 선부외『당배』들어 회합된것이라한다

利權家冒耕者登場 爭奪戰猛烈展開?

이폐천부지에 대하야서는 이개수공사가 필한때 즉소화구년경 가(利權家)가 총동원하야 암약부터 각종리권배들이 련방 대부를 제출하야 엽시 도당국에 제출된것이 물경수천건에 달하얏든데 그때 도당국에서는 일체각하(却下)하야 버렷스며그후 총독부로부터 정식지령(正式指令)어 엇슬때까지는 치안헛슴으로 잠시잡잡하고잇섯스나 어제부터 다시개시할 모양이며 얼면 모경자들도 로차그대부를 진정하는동시 가진방법으로 자기들에게 드려오게 하려고암약하는중인데 어리권가 모경자들의금후 암약은 더욱 가관일것이며도 당국의 처분방침결정에 주목이 끌리고잇다

盈德東海岸에 各種漁業不振

【盈德】경북 영덕군(盈德郡)은 해안지로되여 본군경제계는 해산물(海産物)산출에따라 좌우되든바 수년래로 겨울어장도 부진되엿슬뿐 아니라 여름 정어리(鰯)공장 경영자들도 수만원식투자하야 겨우 영덕어업조합(盈德漁業組合)관내를 제한외에는 모다 부진상태로 당어자들은 큰 타격을 당할뿐아니라각게에 밋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한다

사랑하는男子爲해 몸판妙齡處女

【釜山】사랑하는 남자를위하야 십팔세의처녀가 작부로몸을 팔리엿다가 구조된눈물겨운 사건이 잇다 사건의 주인공인 경북 성주군성주면성주리(星州郡星州面星州里)출생 리순선(李順先)(一八)이는 실톄세때에 고향에서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남달리사랑하는 부모의슬하에서 귀엽게자라낫섯는데 작년전조선을 습래한 대풍수해로 말미아마 전답과가장집물을 유실당하여서 그곳서는 살수업게되엿스므로 작년십이월에 부모와함께 부산으로 옴거와서 부내대신정에 셋방살림어 열이에게 그어웃에사는 함모의 소개로 부산목도 레코-드 판매점인 주화당(周和堂)에 점원이 되여섯다한다 그런데 그전에 가족관계로적조금씩하는 부내모주조회사판매점점원 배인규(裵仁圭)(二〇)와 서로사랑을 속살거리게되자 날이갈수록 애정이두터워저서 마침내 정조까지 밧치엿섯는데 십여일전에 그남자의 업으로 정발는을 살배원횡령소비하엿스나 갑출모책이업스니 어대로엇다면수업내로 경찰에잡혀가게되겟다는 말을듯고 이것을 구원하고자지난 십사일에초량정 모음식점에 상배원에 몸을팔기로 계약을하고 그중으심원을 바더서 전기남자를주고 자기는 작부노릇을 하게되엿는데 지난십오일밤에그 남자의 사건이 판로되여서 경찰서에 연치되여 취조한결과그 내막이 전부알게되여 구조되엿다

消毒劑로殺人한 金仁護三年服罪

【平壤】술마시다가 시비끗에 손에자엇든 소독저가로 친구명대용(明大容)외 ... 되엿다

婦女專門소매치기 六名을一網打盡

【釜山】요사이 부산시내의어두운거리에서 부녀자에게 소매치기하는사건이 빈발하야 일반부녀자들은 공포를 늣기게되여 부산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체포코자활동을 개시하고잇든중 지난십오일밤에 부내영선정(瀛仙町)모곳에서 조인수(曹仁洙)(二〇)손병덕(孫炳德)(二一)등 륙명을 검거하야다가 엄중히취조한결과 그자들은 어동이되여 조직하고 부녀자를전문으로 소매치기를 하얏다는데판명되엇서 여죄 삼십여건에 달한다고한다

某會社에不正嫌疑 證據書類等押收

淸州署에서繼續內査

【淸州】소화십년초추경찰림되엇든 주모회사(某株式會社)내의 부정사실 혐의로 청주서에서는 극비밀리에 조사를진행중이라는데 내용을극비에 부치므로 자세한것은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동회사는 만주에 토지를매수하야 충북도이민에게 제공하야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소화십년에창설되엿다 그런데 수개월전부터동회사의 주주로 현간부인모씨가 회사돈을 횡령소비하엿다는 풍설이 루모되게되여 최근동회사의중역리모(李某)는그진상을조사하기위하야 극비밀리에 매수한토지소재지인 만주에가서 조사한결과 동회사에서 드른바와는 전연달리 농경지(農耕地)에는 소용이 닷지안는백사지만 매수하여 노앗스므로 큰망귀청하게 되엿다 한다 여기에 부정사실이 잠재하지나안홀가 의심된다고하여일방수개월전 청주서에서는 동회사창립에 부정사실이 잇섯스나 그당시는 조사한바 잇섯스나 당지경찰에서는 암암리에 내사만계속중 연한증거가 업섯스므로 명활한 단서를 잡은모양으로 동업을 개시하게되여 지난십팔일 전기 간부 모씨의 가택을 수사하야 증거서류등을 다수압수하엿다하는데 동사건은 조사에 따라 상당히광범위로 확대될모양으로 엽방은 극히주목하고잇다 한다

停頓中의淸羅線 鋪裝工事近近着工

淸羅間鐵道의位置內定으로

【淸州】총공비 륙십팔만원으로 금년도부터 이개년계속사업으로 시행될 현안중의 청라가도(淸羅街道)의 포장공사(鋪裝工事)는 도중에 청라직통철도(淸羅直通鐵道)의 로선위치(路線位置)대문에 일시정돈상태에빠저엇든바 철도당국에서 로선위치에 대한 대체결정을보앗슴으로 즉시 도로공사를 착수하게되리라한다 이문제는 수성평야의대동맥으로 중요한위치에잇는 도로인만큼 일반의관심은 그위치여하에 집중되고잇다한다 어에 충북도 후등토목과장(後藤土木課長)은 최후결정을보기 위하야 지난 십오일 급거상경하얏다는바 여로서 동공사착공은 느저도 래월초순에는착공되리라한다

非常時局에對處코저 平壤서府民大會

各要路에激勵打電

【平壤】십팔일 오후네시 평양부 평양상공회의소 재향군인회 평양연합청년회 국방의회 공동주최로 신공회당(新公會堂)에서 보병칠십칠련대 소전(小田)중좌의 『전운이 창일한 북지의현상에 대하야』란 제하에서 열변을토하야 만장한 청중을 감동식힌후 부민대회(府民大會)로 자리를 옴기어 복도(福島)상공회의소회두를 좌장으로 추천한후 다음과가튼 결의를 하는동시에 즉시수상 륙해군대신 외무대신 제이십사단장등각요로에 타전격려햇는데 결문은 다음과갓다

◇宣文

國際信義를 蹂躪하고 排日侮日을 敢行하야 暴戾無限인 支那에 對하야 斷乎膺懲의 決意를 表明한 帝國政府의 措置는 自衛上 不得已한바로 吾人은 全面的으로 이것을 支持하는同時에 東洋平和確立을 爲하야 最善의努力을 하야 所志를 貫徹하야 將來의禍根을 掃蕩함을 期한다 將士에 對해서는 國을擧하야 그 勞苦에 感謝하는同時에 各位의 健鬪를 依賴한다 願컨대 後顧치말고 邦家를爲하야 吾人의 期待에 副케하기를 望한다

昭和十二年七月十六日 平壤府民大會

高瀨船의發火【新義州】

大同江의漂着屍 他殺嫌疑로解剖

【平壤】십팔일오후다섯시경 평

牛車夫의慘殺犯 金孝敏平壤押送

【平壤】우차부(牛車夫) 우창원(禹昌元)(三?)을 작년십이월륙일에 살해하고 소를강탈하야 팔어먹은 살인강도범인 부내선교리(船橋里)사십칠번지 김효민(金孝敏)이라고하는 김효민(金孝敏)은 기보와가티평양서의 수배로 만주국삼강성의란현(滿洲國三江省依蘭縣)성내에서 체포되여 범인을바도려가든 평양서원에게 호송되여 십칠일아침 평양에도착되는즉시로 평양서에류치되엿는데 자기의 죄과를 낫낫치자백하고 범행일체를 시인햇다한다

咸北六個初等校에 昇格指定의깃뿜

普校三、各種學校三校

【羅南】각지에 팽창한 교육열(敎育熱)은 유형무형한 노력의 결정으로 귀여운 결실을어곳저곳서 나타내여고 잇다 여름철에는 함북도에서 정식인가를 바든사립각종학교(各種學校)에 한하야보면 사립각종학교가세곳으로 어동학교의 학급수(學級數)가 어십구학급에 달한다 어를 다시각교별로 보면 다음과가튼바 어로써함북도내 현재의 사립보통학교가 삼십개에달한다

(學校名 認可月日 學年學級)

▲鏡城中央學校 一月六日付 六年六學級

▲私立河西學校 一月十九日付 六年三學級

▲私立芝坊學校 六月二十八日付 六年六學級

▲西水羅普通學校 六月八日付 四年二學級

▲城津普昌普通學校 七月九日付 六年六學級

▲淸津水南普通學校 七月十二日付 六年六學級

地方人事

▲宮澤完三郎氏(慶南道産業課長) 新任人事次本社釜山支局來訪

全州交通事故件數

【全州】전주경찰서(全州署)관내에서 교통사고를 여르킨건수는 금년정월부터 륙월말현재에 자동차 력살(轢殺)자열명과 부상자 열명에 자체파손이 세건이라하며 철도사고에 사망자가 두사람에 나되엿다고한다

工場誘致에必需 三和川埋築實現

平南臨時道會에서工事費決定 躍進南浦의明朗報

【鎭南浦】진남포흑만부민의 갈망의 초점이되여오든 삼화천(三和川)매립공사비는 마침내 지난 십륙일 평남도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엿다고한다 어해보통절한 진남포흑만부민은 희희에날뛰여 잇거니와 지난십륙일 도전(島田)전무가급속래남하여 각관계방면과 절충한바 엇섯슴으로 매립공사가끗나는대로 공장공사에 착수하리라고하며 일반공장이 제일착으로 실현케됨을따러 암암리에유치공작을 하여오든 대규모의공장들도 점차실현의 기운이농후하게되여 대진남포 건설은 아연구체화하여지고잇다 어에대하여판본 진남포부윤은 아래와가티말한다

坂本府尹 談

십륙일도회의에서 삼화천매립공사비예산이 결정됨에 대하여는 흑만부민과 한가지로 경하하기마지안는 동시에 도당국의성의를 감사하는바 엽니다 일만마네(?)공장의 진출이 원동력이되여가지고 장래진남포에 대공장이속속 진출할것이 예상됩니다 흑만부민과 한가지로 대진남포 건설에최대 노력하려고합니다 운운

道立醫院巡廻診察

【全州】전주도립의원(全州道立醫院)에서는 하기순회진료(巡廻診療)를 시행하리라는데 오는어십일에 완주군상관면(完州郡上關面)과 동어십칠일에 완주군소양면(完州郡所陽面)을 순회하리라는바 지난십삼일 김제군금구면(金堤郡金溝面)순회시에 구백여명이 살도하야 성황을이루엇슴으로 금번순회에도 성황을예기한다고한다

貝類採取禁止로 千餘漁民等失業

漢川海岸의重大問題

【漢川】평남평원군한천면어업조합(平南平原郡漢川面漁業組合)에서는 면중행사로 패류산란기(貝類産卵期)가되면 패류채취금지령을 발포하야 엄해업금케 되엿는데 당조합에서는 지난십일일부터 팔월이십일까지 패류를 잡지못하게하엿는데 동시에 금번은 해안충촌(沖沿)에 패류가 만치못한관계로 례년과 달리 엄정어 해안면은 공포에싸혀어오는바 일천여명이 닥치드러일층그생활어 곤난케되엿다한다

第四回中部朝鮮個人庭球大會

挿橋支局後援

【挿橋】충남선삽교역전에 잇는 삽교체육회에서는 례년에 개최하여오든 제사회중부조선개인정구대회(第四回中部朝鮮個人庭球大會)를 본보지국후원하에 오는 팔월일일에 동역전 체육회코-트에서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당일의 성황은 벌서부터 예기하고 동체육회에서는 방금그준비에 분망중이라는바 당일에 출전하는선수의 만흔참가가 엇기를 바라며 당일의 상품은 아래와갓다고한다

一、時日 八月一日午前九時

一、場所 挿橋體育會코-트

◇賞品 優勝旗及旅費十五圓 其他副賞等多數

普校移轉問題로 全北道에陳情

【全州】전북 익산군 황등면(益山郡黃登面) 차대륜(車大倫)씨외 면협의원네사람은 지난십륙일 전북도학무과(學務課)에 진정서를 제출하얏는데 내용을드른바에의하면 익산군황등면 공립보통학교(益山郡黃登面公立普通學校)는 학급증설에따라 교사(校舍)가 협착하므로 동교를이전코저 그동안 후보지를물색하든중 당로자들로부터 선정하여다는장소는 동학상황면을동은 음료수도 부적당하다하야 동면의중앙지인 황등리율목정(黃登里栗木亭)광장에 이전하야달라는뜻으로 전거와가티 진정서를 제출하엿다한다

挿橋 **中部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一日午前九時 (雨天順延)

▲場所 挿橋體育會코-트

◇主催 挿橋體育會

◇後援 朝鮮日報挿橋支局

居昌 **南朝鮮庭·軟野球大會**

▲時日 七月卅四、五兩日(庭球) 七月卅一、八月一日(野球)

▲場所 居昌體育協會球場

◇主催 居昌體育協會

◇後援 朝鮮日報居昌支局

万斛の涼！清新の快！盛夏潑剌の豪華版出づ!!

思慕卅年の愛 有島武郞の幻を慕ひて ティルディ・ヘック

★この一冊あれば夏も暑さを忘れて過せます。一家打揃つて樂しく明るく―健康と聰明な新時代の雜誌

チィルディ・ヘックのことども 佐藤隆三

婦人公論 八月「貞操と犯罪」號 定價五〇錢 本日發賣

特輯實話 **春の目覺めと少年の犯罪**

□若妻は何故殺されたか □海水浴場の小惡魔 □退屈とは女の同義語？ □盜まずにゐられない少年

□犯罪する少年と貴女の子弟は無緣ではない □蚊帳の夢を忘れ得ず □硬派不良に陷る徑路

批判・思春期の犯罪 (社會情勢の推移は、少年の春の目覺めを早からしめてゐる。思春期を誤らしめた不幸、子の不幸、親の不幸は双葉にて摘まねばならない。) 醫學博士 金子準二

□映畫を見る女性への言葉(映畫全盛の時代、これに憧れる女性への指導と忠告) 長谷川如是閑

□餘暇の讀書についての答へ(讀書の要諦を寸言にして鋭く敎へ込む熱論) 大塚金之助

□ソヴエトの赤い嵐 (女性世界展望)…清澤洌

□保健國策の効果 (女性月評)…山川菊榮

□時事總評 □釣(僕の頁)…嶋中雄作 □星座物語…野尻抱影 □避暑地の娘へ…岡本かの子

賀屋藏相の母 …志田十一

十の生靈よかへれ 同情園主 坂巻てる

鬪貧記 眞船豐氏夫人 眞船とき子

ブロンドの牝豹シーン・ハアロウ物語…清水千代太

同性愛心中の秘密 北田秀子

モオツアルトの藝術と生涯 大田黑元雄

銀幕二十年の思ひ出 (自傳) 栗島すみ子

僕のお嫁さん(獨身人氣者お嫁さん探し) サトウ・ハチロー

盛夏の健康補強食 瓜料理二十五品 鰻・鮨・鯉料理

□赤ちゃんもおしゃれがお好き □婦人に必要な電氣の知識…佐野昌一 □女性は男性より本質的に優秀…岡徹

特輯 **現代の貞童**

童貞と性的苦悶 □童貞の青年はどの位ゐるか □童貞を守つてゐる理由 □童貞で結婚した青年の感想 □初經驗の統計年齡 □童貞破棄の對象たる女子

童貞と性業婦―童貞喪失後の告白

既婚者と童貞―既婚婦人による童貞破棄後の變化

未婚者と童貞―□日本青年の初經驗 □初經驗後の變化

童貞喪失後の變化

現代大學生の童貞調査無記名報告 醫學博士 安田德太郎

特輯實話 **貞操の危機** 二篇

□三行廣告利用の惡魔の手を逃れて…明石敏子

□貸間を利用する色魔の牙を逃れて…吉田愛子

讀切探偵小說 ヴヰナスの計算狂 木々高太郞

讀切戀愛小說 光りなき生命 須田島三郞

南風 林芙美子

練獄聖爭 里見弴

美しき五月となれば…林房雄

笑ふ戀人…尾崎士郎

牧歌…川端康成

流行歌手…長田幹彦

虛榮の市…森田たま

思ひ出の町 育てゝゐる記憶 長崎市…蓬川稻子 北海道…札幌…下村千秋 三浦三崎…中河幹子

名花結婚三重奏 (スター・ロマンス) 水谷八重子・守田勘彌 夏川靜江・飯田信夫 小夜福子・東郷靜男

中伏迫頭한이때에 移秧은겨우八割

一萬三千斗落의移秧은絶望

求禮에殺人的大旱魃

【求禮】장천도무심하다 년래로 재앙이 중첩한구례지방은 금년에와서는 또한발이장기에 뻗치어 중복이린박한이때에 과거와 비교하면 금년처럼이앙이 부진한때는 업섯다고한다 수도작부 총면적(畦畔控除)사천삼백사십삼정보에 지난십오일현재로 겨우 팔할가량의 이앙이끗나고 나머지 이할즉일만삼천여두락은 대개보수답이나 천수답으로 가위이앙이절망상태에잇다 이제까지는 이미심은논은 말년두면서도 이앙답에이중하기에 중점을두엇고 도농미모(動穫)를 하여왓섯스나 서중도 극렬하여에따라서는 못하게되엿고 벌서 중복이닥처왓스므로 이미 심은논까지를버릴수업다 하야 아프로는더이앙을계속하기 어렵게되여 대용작물을 고려하지 안흐면 안될지경에 잇다군내이앙 성적을보면 마산, 토지, 산동, 간문, 구례, 룡방, 광의의 순서로 룡방의 광의면(光義面)이 가장불량하다 참고로 금월내의 강우량을 조사하면 七月四日四粍 五日十五粍 六日八、五粍 九日〇、五粍 十日〇、三粍 十一日十粍 로 이가티 건장마만 지다가 이지음와서는더욱 쨍쨍이기만하야 비올징조는 조금도 보이지안는다한다

崔炳默技手 談

이번에 전군각면을 일일히실지답사하엿는데 가장 룡감한것은 각처대소보(洑)를 철저히개수해야되다는것입니다 보를철저히 개수한다면 금년가튼때에도 좀더이앙이 증진될것입니다 상부에 교섭하야 보개수에대한보조금을 엇도록할 생각입니다

各處에버러진물싸홈 流血亂鬪劇頻發

郡警兩當局出動調停

【求禮】별항 보도와가티 구례지방의 한발은 갈처에서 나날이 물싸음만 일으키고잇는데 이제 그러저한 사실을들면 수일전에 구례면 봉서리(鳳西里)에서 김모와 정모간에 물싸음으로 중상이되여 가해자는 도주를 하여버리고 피해자는구례읍 유리의원에 치료중이나 생명이 의독하다 하며 광의면 구만리(光義面九萬里)와 룡방면 신기리(龍方面新基里)간에 잇는 강상보(江上洑)를 중심으로 물싸음이 생겻는데 강상보는 지천리송천보(芝川里松川洑)까지에 이천여두락의 관개에관계되는보수요새내보는 룡방면사림리히보(四林里稀洑)까지에 역시이천여두락관개에 영향을 가진보수로서 량면몽리관게자 백여명이 련일 충돌되여 사태가험악하여가므로필경구례경찰서고등계주임과게원급원장의주재소원구례군청원과량면리원이현장에급거출동하야 조사를하고 조정하려햇스나 용이히 해결될형세가 아니므로 지난십이일에군청으로룡방면측으로는면장박래철(朴來喆)과 몽리관게자대표리종철한병학(李鍾喆韓秉學)량씨와광의면측으로면장및대표자김영준리주구(金永駿李俊九)씨등을 회동식히고새내보어구를필수업다는조정을 내렷스나 룡방면측에서는 거금륙십칠년전의 신미년사실과 지난소화구년즉 갑술년홍수때의 려사적사실을들면서 끗까지 대항할기세를보이고잇고 또임방룡방면선월리(船月里)급 광의면지천리송천보와 새보(新洑)를 중심으로 물싸움을하야 서로대치하여서 신보의허가취소를 대산리(垈山里)와 지천리 몽리관게자들은 구례군청에 진정을하고잇다는데 구례일대의한발은 인심을나날이불안의 구렁으로밀어넛코잇다고한다

神秘의微笑띄우며 句句節節이哲理

켈러女史平壤의日程을마추고 一路滿洲에向하야出發

【平壤】경이적 인간『헬렌켈러』여사의래양제이석인 일반을상대로한 강연회는 역시맹아학원(盲啞學院)주최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부내공회당에서 십육일오후여덟시반부터 오전과가티"나의 過去와現在」(過去와現在)에서날고싶은魂」이란연제로 초만원의 성황을 이르오가운데 맹아학원장김비서『룡손』양부연암교(岩橋)박사 취성(金聚成)씨의 개회사 시야(矢野)평양부윤의한영사가잇슨후 박수환호리에 상봉고의 초인적 성녀 헬렌、켈러여사 등장하야 지용은(池榕殷)씨와 가티 무엇을 보고、들어、감게하는지 머리를 끗덕이며 손을들어 신비한 미소를던젓다 오전과가티 지난모ー든고해를 돌파하고 오늘의 인간으로서는 상상도못할 신비적 소위성공이란 기스대를 잡은데대하여 마디 마디의철리는 듯는사람으로하여금 감격에 넘치게햇고 이른인하여 우뢰성가튼 박수소리는 외ー노평양을 뒤흔들만한 기세엿다 끗흐로평양에대하여특별이 알고잇는것이 무어시냐하는 일반의 질문에대하여 『평양은 락랑고분(樂浪古墳)에의하여 고구려의수도 이평양의문화가 얼마큼 발달되여잇섯다는것을 잘알엇고 둘재평양은 조선의 공업도시로서알엇고 셋재평양은 평양밤(栗)의명산지로 알엇다 그러기때문에 내가평양을 떠나기전에 꼭한번 먹어보겟다 그리고평양은 명승지라는것을 냄새로 더욱 잘알엇다』 강연이 끗난다음 맹아학원으로부터 기념품 증정식이 잇섯는데 중정품은우리평남의 면산품명주(明紬)로 이번서이불을 만들어 여사와"물론"양에게 각각하나식증정한데대하야 여사는반가워하며 「이이불전체가 평양의 산물이고며욱이조선의 예술이잣겨잇는데 가입을 기렴하여 영구히 가편하겟다」하며 중정품을 둘고갈사의 뜻을 표하고 이로서평양에서의강연회는 끗을마추니떠는동신시경이엇다 그리고 여사는 십팔일아침렬차로 부해하리라는데 만주각지에서강연을 끗마치고 지나가는것은 북지의 시국관계로 중지하고 려정을 변경하야 팔월초순 집부환(扶父丸)으로 귀미할예정이라한다

(寫眞은 一般市民에게의 講演會)

漢川普校改築費의 義捐金定額超過

地方人士의教育熱沸騰

【漢川】평남평원군한천면공립보통학교(平南平原郡漢川面公立普通學校)는 지난이십여년전에 창립한이래 한번도수축한적이업서서 근년에잇서서는 붕괴할지경에잇서 일반면민과 학교당국에서는 다년간 동교개축에관하여 도군(道郡)으로 노력하여오는바 겨우 금년에개축키로결정되여 지난오월부터 건축비일만륙천팔백원에 기공착수중이라는데 동교기지가 불편하야 건축비외에 부족금이 이천여원임으로 동군군수조상만(趙尙滿)씨가 면민대회를열고즉석에서 이천원을 모집하고 부족금칠백여원은 학교책임자가면민을 호별방문하며 이달하순까지 완료하겟다고하는데 의연금(義捐金)을 낸사람의 씨명은다음과가다

◆義捐金과氏名 五十圓 李致鎔 康永燦 卅圓 朴永洪 黃呂根 金日初 金用彬 李仁植 金淀載 盧有萬 鄭賓洙 廿圓 宋仁鎬 崔文國 金大用 金寬堯 黃貞三 盧正模 李昌涉 洪永植 金應彬 康允泰 金大應 林瑞基 金泰彬 金麟珏 盧有禮 韓尙林 十五圓 吳用三 金喆 金孝仁 石允模 朴龍賢 朱宗道 合計金七百五十圓也

江原道에서도 臨時郡守會議

【春川】강원도에서는 시국의중대성에 감하야 오는 십구일(일일간)오전열시부터 도 회의실에서 림시군수회의(臨時郡守會議)를 개최하게되엿는바 도당국에서는 실무일오후에각군수에게지급전보로 통지를 발하엿다

歸途의普校生二名 "도록고"에重傷入院

危險한埋築工事線路

【元山】기보=지난십칠일 오전열한시쯤 원산제이공보(元山第二公普)교 정문아페 룡로에 부설한 밀철로긴우에서 전기학교 상년생구명과 부근에잇는 소녀한명이 구배(勾配)가 급한데서 나려오는 원전조(原田組)토차(土車)=도록고=에 치워서 중상을입고 각각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함은 기보한바 어니와 중상자의 용태는 다음과가트며 원산서에서는 피의자인 토차운반부 남병달(南炳達)(三)과김일근(金一根)(二)량명을 류치하고방금 엄중 취조중이다

元山府銘石洞四三의二
第二公普一年 金吉星(八)
(左右足部裂創挫創顏面挫創治療一個月以上)
元山府銘石洞一七一 朴玉子(五)
第二公普二年生鄭允八(六)
(左側大腿骨折治療二週月以上)
(顏面裂創、右側裂創(手術切除)治療一個月以上)

별항=보교생의 중상원인은어린생도들이 싸홈구경을 하다가 경사가급한데서 토사가 나려밀려 중상을입은것인데 전기밀철로의부설장소는 제이학교가는통로(通路)로서매일 수천명어린이가 왕래할뿐아니라 부근주가에서도 수만흔사람이 왕래하는도로임에 불구하고 토차선로에철조망(鐵條網)을 치지안코 방임하나 다른데서 예사람만이 경계하고잇다는 사실이 이번사고의 원인(原因)이라고 일반부민의 여론이 벌등한다 이에 대하야 관게자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學校某先生談 우리들은 매일조석으로 아해들의 등교하교시마다 밀철로의 위험이잇스므로 길에나와서 아해들에게 주의를 식혀오기때문에 입때꺼스 아무런 사고가 업시 지나왓는데 오늘은 마침 상급생의 교수시간이 되여 그만 집으로 돌려보내고 잇든동 그애들이 남어잇서서 싸홈구경을 하다가 그가티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인데 정히 만흔 다리를 적게되여 불구자를 면키어렵습니다 사회여러분게 말할면목이 업습니다 운운

原田組現場監督談 생도들이 싸홈구경때문에 모여섯길래 우리들세사람이 이곳에서 그들을 쫏츠며잇섯는데 우에잇는 토차가 정거를 하고잇슬때 다음에 나려오는 토차가 그만정거를하지못하고 아래차를 나려밀어 이참변을 이르켯습니다 운운

라디오

十九日(月曜)

◇午後六時 (名)英語講座(六의四) 若林秀三
◇同六時三〇分 童話『불다는城』 洪銀杓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 登山道德에對하야 姜正高普 黃澳
◇同八時 講演 社會病理學의問題 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三〇分 野談 獄에가친장승 申鼎言
◇同時五五分 一、도라지打鈴 二、노들江邊 三、興打鈴 四、늴리리야
◇同九時一五分 誦詩及誦書 一、琵琶行 二、赤壁賦(前篇) 林明月 成珠 館娘子

第一放送

◇午後六時(城) 講演
◇同六時三〇分(京) 物語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謠曲
◇同八時三〇分(大) 民謠
◇同八時五〇分(演) 浪花節

元山 納凉映畫의밤

▲時日 七月二十一日부터四日間
▲場所 遊樂館
◇主催 朝鮮少年軍元山第二虎隊
◇後援 朝鮮日報元山支局

今十九日 午後八時半부터 白善行記念館에서

오페라·歌手 金山穆獨唱會
◇主催 平壤音樂協會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長篇小說 어머니 【99】

李箕永作 鄭玄雄畫

第二、母性篇

六、부인향상회(一)

숙희는 올봄부터 진수가 유치원을 다니게될 발면으로 그해가을에 인숙은 숙희의소개로 부인향상회를 다니게되엇다.

숙희는 ××학교에서 새로 창립한 향상회에가입하엿든것이다.

××학교는 비록 사립일망정 시내 어떤 유지의 후원으로재정의 기초가 드러서서 남녀학생이 수백명에 이르고 유치원까지 경영하는터이엿다.

인숙은 처음에는 고사하엿다 그러나 숙희의말을 드러보면거기는 여자는 누구나 드러가도상관이업슬뿐아니라 여러가지로 재미잇는일이 잇다고 패이는바람에 그도차차솔깃하게 들렷든것이다.

숙희가 한사코 인숙이를 향상회에 끄집어너코 십흔것은 첫재는 자기혼저 다니기가 심심한 까닭도 잇지마는 그보다도 구식여자로서의 자기는 그런회석의 절차를 잘모르기 때문에 인숙이와 가튼 동무를 구하고 시펏든 것이엿다.

인숙이도 집안에만 처박혀잇서서 답답하든차에 틈틈이 그런데라도 다니게되면 다소간파적이 될것갓햇다.

그는 더욱 방안에만 드러안젓든 가정부인도 아니다 다년간 교회생활을 하다가 별안간 방속에만 가처잇는 생활을 하니 그러지 안어도 답답한 가슴이 더한층 울결(鬱結)하야견딜수업섯다.

그러나 똑바게 환경이 달러진뒤로는 누구하나 아는사람도업고, 갈곳도 업서서 오직 숙희의집을 한집안처럼 드나들든터이엇는데 숙희이 다니는 향상회라면 인숙이도 못다닐것업슬것갓해서 첫재 향상회란 무엇인가하고 그회의 취지서를어더보앗다. 그것은 그학교의 아동모매와 일반부녀자의 계몽기관으로서 그들의 생활을 향상식히자는것이라한다.

그러면 웨 청년회라 하지안코 향상회란 무엇이냐하는 다소 막연한 늦김이 업지도 안호나 그것은 그학교의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삼어서 아동의가정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뿐만아니라 일반부녀자를 널리망라하자는 의미에서 그러케 범위를 넓힌것이라한다.

회비는 매월 십전식이요、필요에 따러서 강좌의 강습회를 여를뿐아니라 한편으로는 부인야학도 시작한다는것이엿다.

『가보서요! 참 우습지요 내 남어지 구식녀자들의 무식한 끄라선이와 또 그 웃잔은 선여섯쳐ㅅ것의 건방진 수작이라니 참으로 눈꼴이 시여서 못볼지경이지요』

숙희는 오늘도 모히는 날이라고 인숙이를 차저와서 가자는 바람에 그도 호기심이 나서 처음으로 따러가 보앗다.

이날의 모임은 ○○학교 이층강당에서 열리엿다. 마침 토요일이라 학생들은 일직이 파해가고、당번아이들이 아직 몃사람남어서 아래층의 소제를 하느라고、직거리고 잇섯다.

회의는 열두시반에、열리기로 되엿다.

인숙은 숙희에게 이끌리여서 드러가는길로 서기에게 소개를 밧는 동시에 간단한 입회형식을 마첫다、

눕흔지대에 서잇는 이학교는 전면으로 경성시내를 시원하게 내려다 볼수잇섯다. 한시가 거진 다되엿는데도 회원들은 몃사람 오지안헛다. 인숙은 이층 한구석에서 무심히 안저를 내려다보고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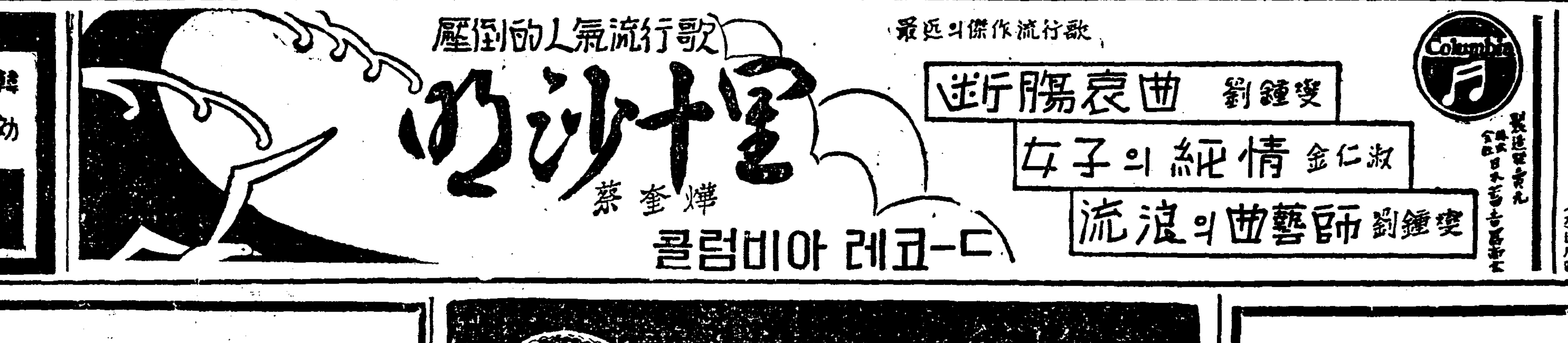
인숙은 어쩐지 한편으로 어색하기는하면서도 마치、처음으로입학하는 신입생과가튼 호기심이 떠올랏다 참으로 그는 이런공기를 접해보기는 처음이엿다. 밋지 안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는 상종하엿드 만치마는 이와가튼 모임에는 처음인만큼 ― 그는 마치 딴세상을 구경하는것가튼 기이한 늦김이 업지 안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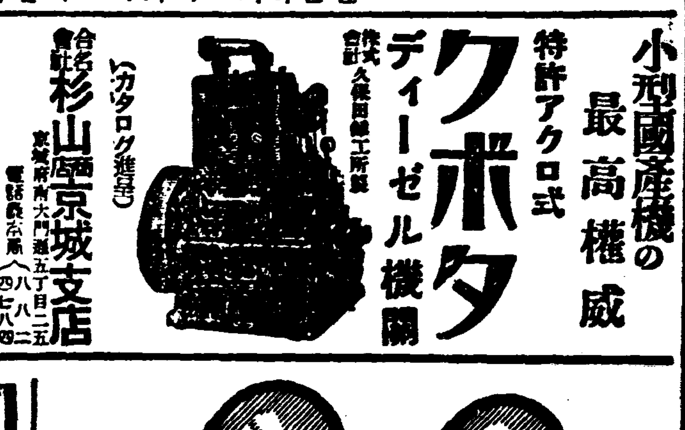
그만큼 그는 불안과 기대를 뒤석근 복잡한 감정이 흘르고잇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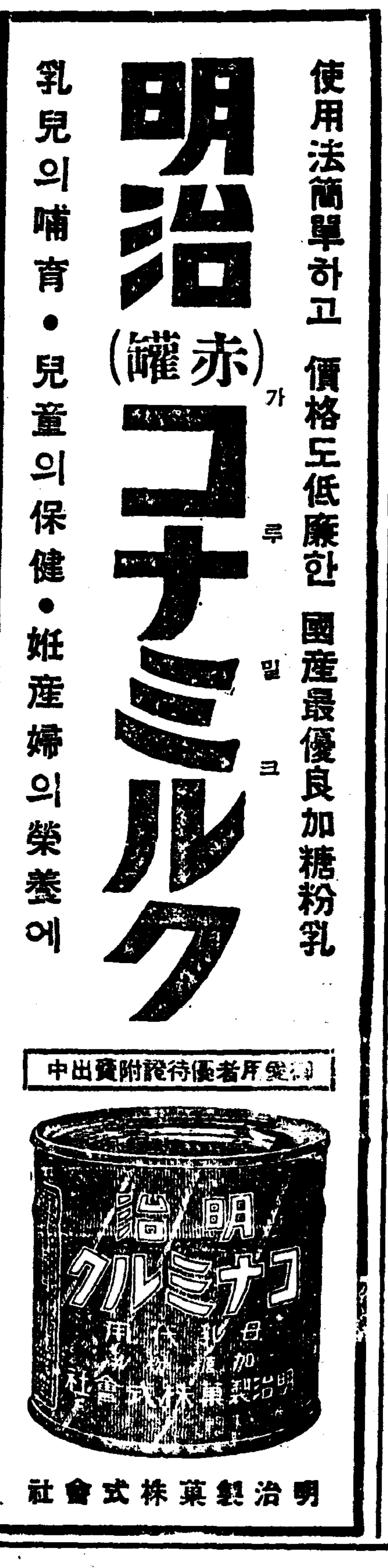
한시가、지낫다. 그제야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한다. 인숙은 은근사람들을 낫낫이 처다보니 과연 그들은 형형색색이엿다. 중년과 로인이 잇는가하면、새파란 젊은 녀자도잇고 시대의 첨단을 것고잇는 신녀성이 잇는가하면、가정에 드러안진 무식한부인도 끼여잇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보면 신여성보다도 구식여자가 만코、젊은이보다는 중년전후의 부인이 만흔것으로보아서、과연 그들은 청년회를 들기도 어중띠고、야학을 다닐수도업는 그야말로중간계급을 형성한 인물로서、그들에게 만일、지식을 줄수잇다면 막연한 상식을 너머주는수밧게 업다는 ―비로소 향상회의 내막을 엿볼수잇섯다.

그러나 인숙은 내심으로 의심하기를 이런 구구한 인물들을 모아노코 그들은 무슨일을하는가 십허서 은근히 궁금한 생각이 드러갓다.







本社營業局直通電話本局(2)六三八一番